

고규홍의 '나무생각'



나무가 전하는 침묵의 아우성

주말 이른 아침, 도시 한가운데에서 천년을 살아온 은행나무를 찾았다. 주중에는 무척 번잡한 거리 곁에 서 있는 나무다. 나무 앞 비탈진 도로 건너편에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 있고, 비탈 위쪽으로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한 대학교 정문이 있는 거리다. 오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도심이다. 하지만 주말 이른 아침은 고요했다. 홀로 우뚝 선 나무는 언제나처럼 침묵이다.

은행나무는 이 도시의 보호수 제1호, 천년을 살아온 나무다. 한창때는 30미터까지 치솟았던 나무지만, 지금은 10m를 겨우 넘을 정도로 쇠약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나뭇가지는 잘라 냈다. 나무의 키는 자연히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앙상한 느낌을 주는 성긴 생김새다. 천년의 위용은 사라졌다. 봄이면 나무는 새 가지를 내고, 가을이면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천년에 걸쳐 나무가 사람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언제 누가 심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나무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신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땅 위로 드러난 뿌리가 흠에 덮이면 마을에는 역병을 비롯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전설이다. 나무가 보여 주는 풍경 가운데 장관인 것은, 사방 10m 반경으로 둘러친 울타리 안쪽의 바닥 위로 돌아 올라 곱들거리는 뿌리다. 십년 전만 해도 그것이 흠에 덮였다. 전설을 믿지 않는 합리와 실용의 시대라고는 해도 사람살이에 해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일부러 했을 리는 없으리라. 대관절 어찌 된 일일까. 가만히 바라보니 뿌리 위의 흠 사이에 돌어난 이름 모를 풀들의 새싹이 눈에 들어왔다. 흠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설을 잃어 가는 사이에 나무 뿌리 위에 흠 먼지가 곰비임비 쌓였다.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언덕 위쪽에서 빗물에 섞인 흠이 흘러왔고, 흘러내린 흠은 뿌리와 뿌리 사이에 차곡차곡 고였다. 예오라지 쌓인 한줌 흠을 보금자리 삼아 풀씨들이 날아들어 싹을 틔웠고, 여러 풀잎 곁에는 다시 또 흠이 쌓이며 지금에 이르

렀지 않나 싶다.

땅 위에 저절로 드러난 뿌리 위에 흠이 쌓여 덮이는 건 나무의 생육에 치명적이다. 이른바 복토(覆土)다. 복토로 죽어간 나무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없다. 전설은 결국 나무를 지키기 위해 옛 사람들이 지어낸 지혜로운 이야기다. 나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옛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나무는 전설을 통해 사람의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전설을 잃어 가는 현대의 도시에서 나무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람의 마을에 전설이 사라지자 나무의 말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자연스러운 순서다. 과학의 시대에 전설은 별무소용(別無所用)이고, 도시에서는 누구도 침묵하는 나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무 이야기를 잃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무는 하릴없이 기력을 잃었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사람살이를 풍요롭게 지켜온 나무에게 닥친 슬픈 운명이다.

지난 세기에 명수필 '침묵의 세계'를 남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막스 피카르트는 현대인의 모든 병은 '침묵의 상실'에서 온다고 했다. 이어 모든 현대병의 치유는 침묵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침묵은 언어의 중단이 아니라, 언어 이전에 존재한 심연이라고 강조한 그는 그 모든 침묵 가운데 자연의 침묵이야말로 모든 생명이 가장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라고 했다.

도시에서 침묵으로 살아가는 나무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래서 쓸쓸하다. 말하지 않으면서 천년에 걸쳐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을 걸어 온 나무가 신화와 전설이 사라지는 과학의 시대에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이 스러져가야 하는 운명이 서글프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진리가 외면되는 세상에서 나무가 침묵으로 들려주는 하고한(하고 많은) 이야기에, 가만가만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의 봄을 더 찬란하게 맞이하는 방법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노년의 행복한 삶과 허리 건강



구희상 광주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100세 시대인 요즘, 60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보다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타닝 포인트다. 60-70대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야외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만큼 노년 시기의 허리 통증은 운동의 불편함은 물론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서운 적임을 허리 질환을 앓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심하게 허리가 아픈 경험이 있어 허리 통증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피곤한 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

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파에 누웠을 때 눈에 보이는 TV 리모콘을 직접 가져오기가 힘들어 아이에게 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휴일에도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누워있거나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요통뿐만 아니라 두통, 무기력함, 시력 저하 및 복통 등 온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여기저기를 찾아 다니며 병치레를 하는데 허비한다면 남은 여생이 너무나 아깝고 우울하다는 생각마저 들 것이다. 이처럼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과 심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이 허리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누구나 개인차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주위의 뼈와 인대가 비후되고, 디스크 퇴행에 의한 돌출로 신경이 압박돼 통증을 유발하고, 하지의 근력 저

하 및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보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미세한 충격이나 외상에도 골절되는 경우가 많아 허리의 심한 통증 및 변형을 유발해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외래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대부분 이전에 본인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외상에 의한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환자들이 민간 요법으로 치료를 대체하고 진단을 받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뼈가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리가 굽어지거나 틀어지는 변형은 발생하게 된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가 굽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것이다.

물론 심한 통증은 없어지겠지만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걸을 때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무서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조그마한 외상이나 무리한 노동, 잘못된 자세를 피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요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리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한번 말쑥이 생기면 만성적인 통증 및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임채석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장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해 역사 왜곡 대응 자료 수집을 위해 항일역사탐방단과 함께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방문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3·1 운동의 마중물이 된 2·8 독립선언 성지였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20여 일 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립 선언'이 행해졌다. 식민 시대 피지배국의 민중들이 지배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감행한 '2·8 독립 선언'이 그것이다.

2·8 독립 선언은 1919년 2월 8일 조선

인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의 '재일본 도쿄 조선 YMCA 회관'에 모여 조선의 독립을 외친 역사적 사건이다.

100년 전 2·8 독립 선언 발표 당시의 그 건물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불타고 600m 떨어진 현 '재일본 한국 YMCA 회관'으로 옮겨왔다. 입구에는 '조선 독립 선언 1919. 2·8 기념비'가 서 있다. 2·8 독립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강제 병합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것'이라는 투쟁 의지를 담고 있다.

방문단은 2·8 독립 선언 기념 자료실을 둘러보고 100년 전 '피의 싸움'을 천명한 독립운동 선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2·8 독립 선언 기념 자료실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비좁고 초라했다.

최근 한-일간의 불편한 관계와 역사 인식의 이질감 등으로 100년이 지난 오늘,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2·8 독립 선언을 목소리 낮춰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

쉽고 씁쓸했다. 한 관계자는 "2·8 독립 선언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내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록 등을 찾지 못해 관련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과 전시물을 살펴보면 중 색깔이 바랜 한 권의 잡지책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2·8 독립 선언'을 높이 평가한 북측 잡지(천리마, 2006년 8월호, 평양)였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보면, "2·8 독립 선언 운동은 일제의 조선 강점 후 일본에서 벌어진 반일 운동을 말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것"이라는 웅변 도입이 있었다. 웅변 대회에 참가한 청년 학생들은 저마다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 정책을 민족적 울분을 담아 폭로 규탄하면서 애국의 피가 흘러 넘치는 청년 학생들이 기수가 되어 독립운동에 앞장 설 것을 호소하였다.(중략) 도쿄 한복판에서 제일 조선인 유학생들이 벌인 이 투쟁은 일제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전 민족적인 3·1 운동의 폭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고 평가하고 있었다.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에는 분단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과 북측이 이념적 갈등이나 편견 없이 오직 조선 독립에 대한 합치된 열망 나타났다. 2·8 독립 선언 100주년을 맞이해 2·8 독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가 아닐까. 2·8 독립 선언 정신을 되살려 분단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1919년 2·8 독립 선언을 시작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년 후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뜨거운 자주 독립운동의 불꽃이 타올랐다. 100년이 지난 오늘,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과 헌신을 생각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주 독립 국민으로 살고 있다. 역사를 잊지 말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社說

광주전남연구원 당초 통합 취지 살릴 수 없나

지역의 싱크 탱크(think tank)인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를 좌우할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시도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당초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 6기 시도 상생 전략에 따라 지난 2015년 하반기 통합됐다. 시도가 정부공모 사업이나 기반 시설 투자 등에 소모적인 경정을 벌이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양 지역의 복합 현안으로 부상한 한전공대 입지나 빛가람 혁신도시 기금 운용 및 고흥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는 없었다. 광주일보가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연구원이 다룬 기획과제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도 상

생 발전 방안이나 핵심 산업 육성, 균형발전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간공영 특례 사업이나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 인구 감소, 미세먼지 등 지역 현안도 비껴 갔다.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양측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는 시도가 공동 출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도의 눈치만 보면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갈등만 커지고 지역 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연구위원들의 연구 성과가 양과 질에서 미흡하고 지자체 수탁 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물리적인 통합으로 몸집만 불렀다는 비아냥거림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치열한 내부 혁신으로 시도의 공존공영과 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광 명소 만든다더니 야적장 전략 웬 말인가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볼놀이 명소 중 한 곳인 보성강 인근에 조성된 캠핑촌 겸 수변공원이 관리 부실로 수년째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성 용문리 캠핑촌 조성사업'(부지면적 3500㎡)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개설에만 모두 1억7000여만 원을 투입했다. 보성강과 가까운 곳에 휴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피우겠다는 사업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애초 사업을 추진했던 전 군수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이후 캠핑촌 조성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설상가상으로 공기기업인 한국건설공사(한전)는 해당 부지에 '전신주 지중화 공사를 한다'며 말쑥한 나무를 뽑아내고 무단으로 자재를 쌓아 놓는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은 폐쇄됐고 음수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등 편의시설 가동도 중단된 상

태다. 캠핑촌이 방치되다 보니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겼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들은 "군청에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 각 부서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입을 모은다.

자치 단체장이 교체되면 기존 사업이 무조건 백척당하라는 폐단이 되풀이될 온 것은 어찌어찌는 일일 아니다. 일부 단체장의 부적절한 지적 쌓기 혹은 특정 업체들을 위한 특혜성 사업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 중단에 따라 애초 취지와 달리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던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성군은 하루속히 지역 발전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캠핑촌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순신은 말 그대로 불멸의 존재다. 그의 이름을 붙인 공원, 다리, 광장, 거리 등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다. 축제, 드라마, 영화 등의 소재로도 각광받는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명량'이 TV에서 방영됐다. 이 영화에서 특히 눈여겨본 장면은 이순신이 승산 없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 앞에서 탈영병의 목을 베는 모습이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린 것이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한 사람을 벌주어 다른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다. 중국 사기열전(史記列傳)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서 비롯됐다. 전국 시대의 병법가인 손자가 오왕 할려의 장남 쉼인 부락에 궁녀 180명의 군사 훈련을 맡았다. 왕이 아끼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했으나, 궁녀들은 손자의 명령을 여러 차례 무시하고 비웃었다. 참다못한 손자가 대장 궁녀 2명을 잡

비단 이순신이나 손자만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 일벌백계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 내부에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를 자주 사용하거나 경계가 아닌 벌칙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부작용은 심각해진다. 조직 전체가 리더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아무리 벌을 해도 조직에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백벌무계(百罰無戒)인 셈이다.

'백벌무계' (百罰無戒)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채점 오류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무

더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는 소수의 비전문 공무원들에게 복잡한 현안을 맡겨 두고 방치한, 잘못된 시스템이 원인이었다. 과도하고 복잡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해당 부서를 기피했고, 담당자나 팀장도 수시로 바뀌었다. 채점 오류를 고집어 낸 감사의 문제점은 유아무야 넘어가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조직 구성원 대다수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할 징계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라 못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ol@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